

건강 칼럼

성조숙증, 부모님 탓 아닌 주의해도 알아채기 힘들어

성조숙증은 부모의 꾸준한 관심이 있다면 예방은 물론 조기 발견이 가능하지만 만약 눈에 띄지 않게 성조숙증이 진행되어 치료 시기를 놓친다면 키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개 남자 아이들은 일곱 나이가 넘어가 되면서 신체적 성장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여자 아이라 하더라도 요즘은 아이들의 체격이 워낙 좋기 때문에 몇살인지 몸무게가 생겼는지 잘 구별하지 못할 때가 많다.

그리고 통통하거나 키가 너무 빨리 자라는 성조숙증의 일반적 증상인 증상이 아닌 다른 체형에 부모가 보기에 아직 아기 같지만 한데 우연히 뼈 사진을 찍어본 뒤에야 또래보다 뼈나이가 빠르고 성장판이 많이 닫힌 것을 발견하게 되기도 한다.

성조숙증의 증상과 진행 속도는 아이마다 천차만별이다. 실제 내원하는 어린이 환자들을 진료실에서 만나보면 코로나 전후로 진행속도, 양상이 많이 달라졌다. 생활의 변화로 인해 외부 활동량의 부족, 불규칙한 수면, 환

경호르몬, 스트레스, 소아비만 등으로 3개월 전 검사결과에는 성장 단계가 정상이었었는데 갑자기 초경이 시작하게 되는 환자와 같이 일반적이지만 생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이미 시작된 생리를 멈추게 할 수 없지만 아직 성숙하지 않은 아이의 몸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도와주는 치료를 할 수 있다. 그 사이에 아이의 키와 몸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성인과 달리 아이들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몸 안에서 일어나는 신진대사, 신체활동이 매우 활발해 하루하루가 다르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성조숙증, 빠른 초경은 아무리 부모가 세심하게 관찰을 해왔더라도 미리 대처할 수 없다.

부모님 중에는 아이의 비정상적인 성장이 자신의 탓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문가가 아니어서는 알아채기 어려운 만큼 지금부터라도 대처를 잘하면 된다.



윤정선  
히우연의원 대표원장

자녀가 성조숙증 진단을 받으면 치료 시기가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특히 여자 아이의 경우 초경을 시작하면 성장이 끝날 키도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미 시작된 생리를 멈추게 할 수 없지만 아직 성숙하지 않은 아이의 몸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도와주는 치료를 할 수 있다. 그 사이에 아이의 키와 몸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성조숙증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자녀가 옷 갈아입는 것을 도와주면서 신체적 변화를 체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최근 훨씬 키가 커진 느낌을 받았다면 작년 키와 비교해본다. 여자 아이의 경우 2차 성징으

로 가슴에 멍울이 생기고 머리에 기름기가 많아진다. 호르몬의 영향으로 땀샘 활동이 왕성해져 사춘기 특유의 냄새가 나기도 하고 간혹 속옷에 짙은 색깔의 땀이 비치기도 한다.

남자 아이의 경우는 남성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하면 머리에 피지 분비가 증가하면서 특유의 정수리 냄새가 나기 시작하므로 아이를 자주 안아주면서 머리에 냄새가 나는지 세심하게 관찰해야 한다고 한다. 또한 최근 거울을 자주 보는지, 멍하니 있거나 짜증을 내는 일이 잦아졌는지, 성적 호기심이 커졌는지 살펴보는 것도 도움된다.

지켜보았을 때 의심스러운 증상이 포착된다면 정밀한 성장 검사를 받고 아이의 체질, 증상, 뼈나이, 성장판 개폐 정도에 따라 적절한 처방을 받도록 한다. 또한 성장치료를 받는 중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함께 개선하면 효과가 더 높아질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는 아직 어린이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평소 아이의 신체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가능하다면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인 성장 검사를 받는 것을 추천한다.

사설

이상민 해임 국회 본회의 통과

10.29 참사의 책임을 묻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참사 발생 40여일 만에 해임건의안이 찬성182표, 무효 1표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정쟁용 해임안일 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표결에 앞서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이 참사 예방은 물론 당일 현장 통제도 전하지 못해 재난기분법을 위반했고, 이후에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적부 유기의 정적에는 책임회피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상민 장관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유가족들의 장관에 대한 책임 추궁도 이어졌다. 참사 직후 책임을 지고 즉각 사표를 냈어야 했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해임건의안이 국회까지 간 것부터가 잘못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명분도 실효성도 없는 해임안을 난발하며 헌법을 희화화하고 있다고

항의한 뒤 모두 퇴장했다. 이어 해임안 통과 뒤에는 '이대원 참사 국정조사위'에서 여당 소속 의원들은 모두 위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의결된 해임건의안은 대통령실로 공식 전달된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미 거부권 행사를 여러 차례 시사했다.

그런 만큼,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때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보인다.

법정시한은 물론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까지 무산된 예산안을 놓고도 여야는 견제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 여당의 초부자 특권 감세 때문에 예산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일단 15일을 합의 처리 시한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려던 해임안만 오늘 통과되면서, 격해진 여야 대치 속에 처리가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4회 피스디자이너 쇼케이스 공모전

세계평화청년학생연합(YSP)이 제4회 피스디자이너(PD)쇼케이스를 개최한다. 이를 위해 평화, 환경, 교육 분야에서 활동하는 우수 프로젝트를 공모한다.

PD쇼케이스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 실현에 기여하는 팀과 단체를 선발해 활동 자금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총 1000만원의 활동 지원금을 지원한다.

3인 이상 활동을 하는 단체는 지원할 수 있으며 선발된 5개 프로젝트는 내년 1월부터 5월까지 약 4개월간 200만원씩 활동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역 사회에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동일하게 지원 가능하다.

선정된 프로젝트는 교육, 네트워킹, 홍보를 통한 참여자 모집 등의 활동 지원과 회의 공간도 제공받을 수 있다. 지난 제3회 PD쇼케이스에서는 건국대 환경 동아리

'EP:isod', 지역 특산물의 못난이 과일을 활용해 환경 보호와 지역 활성화에 추진한 '뽕근뽕' 등이 선정됐다.

YSP의 프로그램은 일본에서 2019년에 처음 시작되어 8개국에서 개최되었다. 청년 학생들은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하였고 교육부와 일선 학교가 협력하여 방안을 도출했다.

국회의원은 의원과 종교, 학계, 경제, 언론, 예술, NGO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 지도자가 참여하는 온라인 청년 포럼을 지원하고 있다. 필리핀, 가나, 인도, 베냉, 앙골라, 브라질에서 청년 포럼을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22년까지 활동 모델을 만들어 세계본부와 함께 통일을 위한 기반 조성 운동을 추진한다. 10만 명이 함께 하는 청년 희망전진대회를 개최하고 국제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신종일 한국의 기반을 다질 것이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무사히 회수된 미 무인우주선 '오리온'



미국 해군 잠수부들이 11일(현지시간) 달 여행을 마치고 멕시코 인근 태평양으로 귀환한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무인 우주선 '오리온'을 회수해 상륙함 USS 포틀랜드로 돌아오고 있다. 지난달 16일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오리온은 26일 동안의 임무를 마치고 무사히 귀환했다.

즐겁게 달리는 프랑스 산타들



1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외곽 이시레몰리노 거리에서 '크리스마스 코리다 레이스'가 열려 산타클로스 복장을 한 참가자들이 달리기 하고 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